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마음

마음은 쓰는 것. 그래서 주고받는 것. 그래서 간직하는 것. 쓰면 쓸수록 줄지 않고 쌓여 가는 것. 그 어딘가에 반드시 쌓이는 것. 결국 내 앞에 쌓이는 것.

누군가 겨울 언덕 위에 그렇게 써 놓았다. 마음 심(心). 어디선가 새들의 발자국 소리가 다가온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① 해를 먹은, 거인 아수라왕

"너무 미운 해와 달, 삼켜버리겠다! 꿀꺽"

아수라는 싸움귀신입니다.

아수라 나라는 여러 아수라왕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인 라후는 아수라왕의 하나입니다. 라후의 키는 수미산 높이에 이르고, 몸의 크기도 수미산 크기에 견줄 만합니다.

그의 영토에는, 보배나무가 우거진 동산 숲이 있습니다. 라후가 동산을 거닐 때는 새들이 고운 소리로 노래를 지저귑니다. 왕이 목욕을 즐기는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그의 궁전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곳곳이 마니구슬과 여러 보배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처럼 호화로운 궁전에 살지만 라후의 마음속에는 싸우고 싶은 생각과 어두운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인 아수라왕 라후는 큰 손으로 수미산 꼭대기를 쓰다듬기도 하고, 큰 손으로 해와 달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크고 푸른 주옥과 빨간 주옥, 잡색 주옥을 몸에 휘감고 있습니다. 이들 주옥이 모두 찬란한 광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 광명 때문에 늘 속이 상합니다.

"저 햇빛 광명이 내가 지닌 주옥의 광명보다 몇 배 찬란하단 말이야.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저 해를 정말로 먹어버려야겠어. 이번엔 먹어치울 거야. 그래야 내가 지닌 보물의 광명이 해를 대신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라후가 해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말 꿀떡 삼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될까요? 해는 수미산 중허리, 해의 궁전인 일궁에서 떠서 동 · 서 · 남 · 북 4주세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낮 동안입니다. 일궁에 들어간 해가 궁전에서 쉬는 동안이 밤 시간입니다.

"이번엔 정말 꿀떡 삼켜버려야겠어."

아수라왕 거인 라후가 덥석 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는 역시 뜨거웠습니다.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그 뜨거운 해를 물었으니, 아무리 거인 아수라인들 소리치지 않을 수 없지요. 거인의 몸이 금방 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라후는 기어이 해를 먹어야겠다며 억지로 해를 삼키려 합니다. 뜨거운 해가 목으로 잘 넘어갈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말합니다.

"한낮에 해가 왜 이럴까? 해가 반 조각이야. 반밖에 없네. 오늘이 일식인가봐."

아무도 뜨거운 해를 물고 견디는 거인 라후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라후가 해를 토해냈습니다. 뜨거워 견디지 못해서 해를 뱉어버린 거지요. 해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일식이 끝났군."

라후의 욕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를 먹어 없애려는 라후의 욕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해를 먹고 말 거다!"

라후는 이 생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마다 일식이 있는 거라 합니다.

그런데 거인 라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달이었습니다. 달은 아름답고, 둥근 모습으로 수미산 중턱 월궁에서 떠서 수미산 남쪽, 염부제로 옮겨가 보석 광명 속에 놓입니다. 이 때면 단정하고 예쁘기가 백배에 이릅니다. 세상 모두가 '야, 밝구나, 놀랍도록 어여쁘다, 달님!' 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림 · 강병호

이 때 아수라의 신하가 라후왕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대왕님, 보름달이 단정하고 엄숙하기가 대왕님이 거느린 미녀들 모습에 비할 바가 아니옵니다."

라후왕은 곧 아수라의 궁전으로 미녀들을 모았습니다. 예쁘게 꾸민 미녀들이 우우 모여 들었습니다. 라후는 하늘에 뜬 달과 미녀들 모습을 견주어 보았습니다. 달에게 견줄만한 미녀는 없었습니다.

"절망이로다!"

한참을 생각하던 라후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 달이 밉다. 이번에는 정말 먹어 없애버리자, 그냥 두었다가는 계속 나를 괴롭힐 테니." 아수라왕은 미모를 뽐내는 달을 먹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먹어버리겠는 생각이었습니다.

덥썩! 라후가 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달은 여간 차가운 게 아닙니다. 아수라왕의 뼈가 얼어버릴 만큼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으윽! 차거 차가워, 으윽!"

해의 표면은 뜨겁기가 6천도였는데, 달은 영하 6천도로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아수라지만, 소리칠 수밖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쟁이 라후가 차가운 달을 문 걸 모르고 말합니다.

"밤중에 보름달이 왜 저럴까? 달이 점점 작이지네, 반쪽이네, 아주 없네. 오늘 밤이 월식인가봐."

아무도 차가운 달을 물고 견디는 라후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라후가 달을 토해냈습니다. 차가워 견디지 못해서 달을 뱉어버린 거지요. 달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월식이 끝났군."

라후의 욕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달을 먹어 없애려는 라후의 욕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달을 먹고 말 거다!"

라후는 이 생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월식이 일어난대요.

〈정법념처경 16권 아귀품〉

신현득 작가는… 1933년 경북 의성서 출생.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소년한국일보에서 취재부장으로 일했다. 단국대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 수료 후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한양여자대학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서울예대 아동문학론 강사, 새싹회 3대 이사장과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을 지냈다. 1959년 '문구멍' 동시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했고 평생 동시와 불교동화를 쓰고 있다. 1971년 세종아동문학상, 1994년 방정환 문학상, 2003년 윤동주 문학상, 2011년 윤석중 문학상을 수상했다. 〈참새네 말 참새네 글〉, 〈어린이 팔만대장경 1,2,3〉, 〈소리 내는 탑〉, 〈슬기의 왕자〉 등의 저서가 있다.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 총 무 원 070-4187-4747 /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원명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법원
호법원장 석설산

호 원
호 원 장 석초오

문 원
문 원 장 석 법

원
교 원 장 석도일

원
원 장 석지광

원
교 원 장 석

종 무 원
전 종무원장 석설산
전 종무원장 석법진
종 무 원 장 석법경
종 무 원 장 석덕오
종 무 원 장 석초오
종 무 원 장 석 해

총 무 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지혜
총무부장 석화성
교무부장 석지담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문 도 회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문도회감사 석지혜

중 앙 원 회
전 원 장 석도현
전 회 장 석지현(경주)
전 총 무 석 정
전 도 회 회 장 세 주
정 원 장 정 재
무 원 장 일
종 사 회 회 장 대 자
원 장 이선혜
전 회장 한

대원불교조계종 불 교 대
, 수 강
수년간 명리학, 성명학을 고 도 아직
통 이 지 는 분은 실 하 지도함
010-3711-5072
교 원 장 : 석 합장
총본산 주소: / . . / 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